



조병대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친애하는 축산농가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2007년의 밝은 태양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한미 FTA협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등으로 양축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그 동안 국가 개량목표 설정에 기본이 되는 종축의 정확한 혈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을 비롯하여 한우농가, 육종농가 등에서 한우의 혈통등록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를 통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급육 생산 개체를 선발하여 한우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한우고기 브랜드화 정착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모우별 혈통 및 능력조화와 계획교배 등의 개량에 관한 정보를 농가 스스로 활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젓소의 산유능력검정을 통한 젓소농가의 산유능력과 경제수명의 연장으로 농가 수익증대에 이바지하고 한국홀스타인품평회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등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종돈농가에 대해서는 검정사업을 확대하고 현재 사용 중인 돼지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축산농가 및 회원여러분의 끊임없

본회가 수집하고 보관한 혈통정보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개량기법을 활용하여 종축에 대한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개량농가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개량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합니다

는 성원과 개량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본회가 수집하고 보관한 혈통정보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개량기법을 활용하여 종축에 대한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개량농가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개량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합니다

본회는 초장기 우리 축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종축개량을 위하여 설립 된지 올해로 38년이 되어서 인간으로 보면 중년에 나이입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강화될 수입소와 수입쇠고기 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확한 혈통 수집을 통하여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전두수가 혈통기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책임이 무거워 짐을 실감케 합니다.

또한 젓소나 종돈에서도 국내산 종축의 생산이용은 물론 나아가서 해외 수출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축산농가 및 회원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며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2007年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한우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들과 함께 노력해주신 관련 기관단체 및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우협회의 한 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현안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굵직한 문제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눌러움에도 지난해 우리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야심차게 새해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미 FTA 협상 저지,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반대, 수입생우 투쟁 등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발 벗고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은 한국과 미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한우인의 뜻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으로써 한우인의 절망감이 더 컸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한우인이 하나가 되어 한우산업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은 한우산업을 최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미 FTA 5차 협상까지 진행된 가운데 미국은 관세인하 등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압력을 가해올 것이며, 미국은 뼈조각 포함 문제로 수입위생조건 개정까지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우인들은 한우업계의 입장을 분명히 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우협회의 한 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현안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굵직한 문제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눌러오며도 지난해 우리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아심차게 새해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명하고 한우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산지 소 공급량 증가로 소값 하락의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내년 한우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농가들은 홍수출하를 자제하고 계획적인 출하를 준비하며, 과도한 입식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에서도 한우판매점인증제, 유통감시활동 강화 등 유통투명화를 통해 소 값 하락에 철학적으로 접근, 대처할 것입니다.

한우인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취약점은 바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쇠고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안전하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살려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우생산이력제가 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이력제를 통해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 간 안전성과 품질의 차별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한다

면, 우리 한우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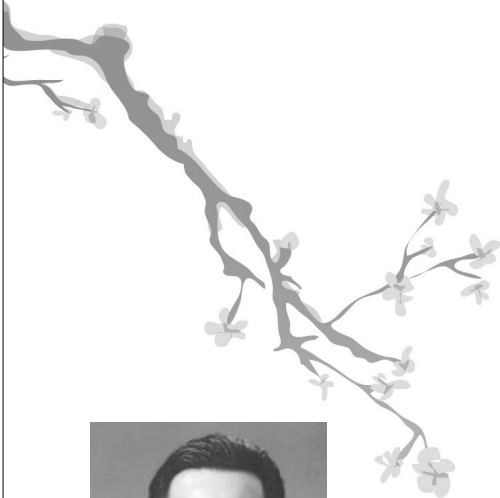
한우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2008년부터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생산단계 DNA 타이핑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이력제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 한우판매점인증제, 한우유통감시단 활동의 점진적 확대와 운영내실화를 통해 한우의 단계별 유통을 투명하게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한우 소비홍보를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한우인들도 막연한 불안과 공포보다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홍수출하 자제 등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한우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전국한우협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이력제, 유통투명화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해년(丁亥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복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기 빌겠습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희망찬 정해(丁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계신 낙농가족 및 관계자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사회적으로 한미 FTA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또한, 우리 낙농산업은 제도개편문제를 비롯 의무낙농자조금사업추진, 농지법개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브루세라 방역문제들로 어느해 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국 낙농가들이 참여하는 의무낙농자조금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낙농가의 한사람으로 매우 큰 자긍심도 가지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고 바른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해야 합니다.

누구나 상생을 얘기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반목을 떨쳐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을 향해, 항구적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길로 가기위한 우리 생산농가들의 단합과 결집의 당위성은 역설적으로 더 크게 와 닿습니다. 뚜렷한 비전속에 목표점을 같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진 낙농국가들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낙농정책이란 곧 생산자 정책입니다.

모든 선진 낙농국가들의 정책기조는 생산자의 우유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우유를 공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우유, 우리목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낙농업의 존재이유는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칼슘공급원으로서 우유의 올바른 가치를 알리고, 낙농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개방화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협의점을 찾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방안들에 대한 제시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낙농가족들은 단호하고도 합치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결국 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도 우리 낙농산업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낙농은 토지이용형 농업으로서 쌀산업 축소에 따른 대체작물로 조사료생산의 이용촉진과 이를 통해 농업기반을 유지해 나가기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우유, 우리목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낙농업의 존재이유는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칼슘공급원으로서 우유의 올바른 가치를 알리고, 낙농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개방화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낙농가족들이 언제 폐업할지만 고민한다면 낙농산업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지만 생산자 주체적으로 낙농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낙농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우리는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원유수급 안정의 기초위에 유업체와의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萬人)의 꿈은 현실이다”는 칭기스칸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올 한해 우리 낙농가족,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